【4】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제출년월일 : 03. 3. 10

제 출 자 : 장재훈 의원외 2인

□ 발의이유

장흥면 울대 고개에서 목암고개까지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주민의 뜻을 충분히 알리고 주민의 뜻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국도 39호선을 선형 변경하여 확장할 것이며

2. 국도 39호선의 확장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습 정체구간인 고양시와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3.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단순 통과 기능이 아닌 주민편의등을 위해 우회도로 신설구간중 송추와 석현지역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

□ 덧붙임 : 결의문안 1부.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장흥면은 예로부터 맑은 공기와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며 서울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역활은 물론 온릉과 권율장군 묘역을 비롯한 토탈 미술관, 부곡도방등 각종 문화공간이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향수를 쉽게 접하게 할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또한 북한산과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송추유원지(북한산 국립공원)와 일영유원지 및 장흥 국민관광지는 사계절 행락객등이 자주 찾는 산자수려한 서울근교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도 39호선의 차량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로서

지방화시대에 있어 국가의 주요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의의 수렴은 필연적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1.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국도 39호선을 선형 변경하여 확장할 것이며

2. 국도 39호선의 확장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상습 정체구간인 고양시와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3.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단순 통과 기능이 아닌 주민편의등을 위해 우회도로 신설구간중 송추와 석현지역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3년 3월 일

양주군의회 의원일동